

하나님의 호애(好愛)

오늘부터 저는 로마서를 바탕으로 강해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선택한 것은 이 책이야말로 기독교 역사를 뒤바꿔 놓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I. 로마서 서론

이 책이 신학자 어거스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선교사 요한 웨슬레 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어거스틴 (354-430)**은 **로마서 14:13**에서 의의 햇빛을 보고 세속(世俗)화된 자신의 방탕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마틴 루터(1515이후)**는 **로마서 1:17**을 발견함으로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확신하고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어 이교도화(異教徒化) 되어 가는 교회를 바로 잡았고, **요한 웨슬레(1703-1791)**는 선교사로 일하면서도 늘 회의중에 있었는데 어느날 루터의 로마서 서문 낭독을 들으면서 회심하여, 화석화(化石化)해 가는 교회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로마서를 성경을 ‘가락지’라고 한다면, 로마서가 그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서는 우리의 신앙체계를 튼튼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신앙체계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당대최고의 신학자인 바울이,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제국의 수도인 로마교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진리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로마서를 들여다 볼까요? 몇 장으로 되어있나요? 몇 절로 되어있나요?

16장(433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읽는데 **몇분 걸릴까요?** 제가 낭독하며 읽어보니까 55분이 걸렸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1시간 남짓 걸리면 로마서를 다 읽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를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들어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들어있습니다. 구원, 성화의 갈등, 민족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법에 이르기 까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총망라된 책입니다.

저는 이번 로마서 강해 씨리즈설교를, 하나의 특별한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감정(感情)**이라는 단어입니다. <감정선으로 읽는 로마서>가 전체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늘 부딪쳐오는 것은 감정의 변화입니다.

감정의 존재(存在)인 인간은, 늘 감정의 변화(變化)를 겪습니다.

희로애락(喜怒哀樂)이란,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을 이르는 말입니다.

춘하추동(春夏秋冬)(봄여름가을겨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생로병사(生老病死)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희로애락도 순서일까요?

희로애락, 처음에는 기쁘다가 분노가 옵니다. 분노가 깊어지면 슬픔이 되는데, 그 마지막이 ‘락’이라면 그 결말은 ‘헤피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희로애락의 비밀, 조현용, 중앙일보 2011.11.15.)

<https://news.koreadaily.com/2017/11/15/society/opinion/5789301.html>

어쩌면, 제가 감정씨리즈를 설교하려는 이유가, 희로애락의 마지막이 즐거움의 락(樂)으로 끝나는 것과 같이 로마서 공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귀결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怒)와 애(哀)가 연달아 나타나는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승리가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부르윈드, Stephen Voorwinde는 “감정은 삼위일체의 각 인격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특히 로마서에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모두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모든 감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II. 서론에 나타난 두 가지 하나님의 묘사

로마서 1:1-7절은 일종의 로마서 ‘서문’이자 ‘요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소개(1) 복음소개(2-4) 사명선언문 (5-6) 축복(7절)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시작인 1절과, 마무리인 7절입니다.

1.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사용한 말씨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이란 ‘하나님에게서 나온 복음’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음(福音)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론 앙겔리온:“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번역하면 Good tidings, Good News, Gospel 이라는 말입니다.

The word gospel has multiple meanings, including a Christian message,
a book in the New Testament, and a type of music:

1) Christian message : The gospel is the Christian message about Jesus Christ, the kingdom of God, and salvation.

2) New Testament book : The gospel is also the name of the first four books in the New Testament, which tell the story of Jesus' life, death, and resurrection. These books are traditionally attributed to St. Matthew, St. Mark, St. Luke, and St. John.

3) Music : Gospel music is a type of music that is often sung in churches by gospel choirs. There are many subgenres of gospel music, including black gospel, traditional, urban contemporary, British, Southern gospel, and Christian country.

The word gospel comes from the Old English words **gōd** meaning "good" and **spel** meaning "talk, tale". It is a translation of the Greek word euangelion which literally means "good tidings, good news". (gospel : [AI Overview](#))

* 사도는 2절부터, 그 하나님의 복음(福音)의 디테일을 설명합니다. 읽어봅시다.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에 요약이 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 복음은 오랜시간을 거쳐서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성경에 미리 말해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갑툰튀’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 복음은 구약성경의 예언의 역사적 성취로 이루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수천년 역사의 지평에서 그 저변에 흐르는 거대한 언약의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사건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 성결의 영으로는 (내재(內在)하시는 성령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메시아)로 선포(宣布) (declared(kjv. niv) 되십니다.

“선포되었다”는 말은 ‘세상에 널리 알리다’는 말입니다.

July 4, 1776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뒤라하지요? “Declaration of Independence”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회에서 선포함으로 전 세계에 새로운 시대를 선언합니다.

* 복음은, 복음시대를 여는 핵심명제입니다.

* 저는 하나님의 복음에서 “좋다”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감성을 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좋다고 하시고 그 좋은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지성과 감성을 묵상해 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처럼.

*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4)

*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10)

*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12)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권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7-18)

*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낳게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1)

*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5) *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1:31)

이것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시니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며, 그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의 본성 그 자체이신 하나님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나, 진노하시는 하나님보다 그 이전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미감(深味感), 선(善)함, 즐거움의 하나님을 저는, 하나님의 복음에서 봅니다. 늘 좋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2.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는 7절에 나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종’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다들 ‘노예해방’을 원하지 않습니까? 인권존중받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이라니요. 왜 그리된 것입니까? 자존심 많은 바울이 자신을 노예라고 할 정도로 낮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복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한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에 비해서(장황한설명) 하나님의 사랑은 간접적으로 (살며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접근법은 우리가 보통 생각해온 것과는 다릅니다.

6-7절을 읽어봅시다. 6.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두 구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것 3 가지가 나옵니다. 영어론 수동태라고 합니다.
called to belong to Jesus Christ. / are loved by God / called to be saints:

1)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것 2) 사랑하심을 받은 것 3)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 주권(主權)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우리는 은혜로 받은 바 된 것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거룩하고는 정반대인 나를 성도라 불러주신다는 것. 그렇게해서 성도의 삶을 살게 비전과 힘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그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 핵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정서와 감성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5: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 성령이 이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인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 38-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25 “호세이의 글에도 이르기,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말을 받아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 9:25-26절에서 “호세이의 글에도 이르기,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사랑은 분명한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로마서를 이분하면 1-11장 12-16장입니다.

12:1절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in view of God's mercy(NIV) by the compassions of God (INT)

자비에 해당하는 헬라어 oiktirmos는 연민, 자비가 머무르는 장소로 여겨지는 창자와 연관이 된 단어입니다. 사랑과 가까운 용어입니다. 바울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있다는 것, 그리

스도인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7:14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 같이 여기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봅니다. 여기에도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이 로마에만 해당할까요? 아니면, 세인트조지에도 해당할까요?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호애(好愛)속에 살고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선(感情線)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TO BE CONTINUED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이해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좋은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소식을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성취하셔서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소유를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